

**보도자료**

2010년 7월 22일(목)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전파기획관 전파방송관리과 송경희 과장(☎750-2250)  
전파방송관리과 이주식 사무관(☎750-2254) jooshik.lee@kcc.go.kr**“지상파 3D 방송, 시청자 관심과 호응 높아”****- 3D 방송 호감도 및 영향성 설문 -**

지상파 3D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은 관심과 호감이 높은 반면, 어지럼증 등 불편감도 적지 않아 향후 3D 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지난 5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시된 지상파 3D 방송을 시청한 일반인(101명) 및 전문가(40명)를 대상으로 시청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이번 설문으로 지상파 3D 방송에 대한 일반인 및 전문가의 호감도 및 향후 이용 여부, 그리고 어지럼증과 같은 생체 영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.

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, 75% 이상이 이번에 실시한 지상파 3D 방송에 대해 호감 및 흥미를 느낀다고 답했다. 호감이 가지 않거나 흥미가 없다는 답변은 각각 10%, 9% 이내였다. 입체감에 대해서는 76% 이상이 뛰어나다고 응답하였으며, 입체감이 별로 없다는 답변은 1.3%에 불과하였다. 시판중인 3DTV의 품질을 묻는 항목에서는 71.3%가 품질이 매우 좋거나 좋다고 답변하였다.

그러나 3D 방송의 생체영향성과 관련한 항목에서는 15~30분 시청 시간동안 어지럼증, 이중상, 눈의 피로, 안경착용의 불편감 등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. 시청자의 30% 정도는 어지럼증 및 이중상을 느꼈으며, 눈의 피로, 안경착용의 불편감을 나타낸 시청자는 50%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.

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는 일반인 설문조사와는 달리 40%만이 이번에 실시한 3D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호감을 표시했으며, 67.5%가 보통 수준의 입체감을 느꼈다고 답변하였다. 3DTV 품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70%가 좋거나 보통으로 느꼈다고 답변하였으며, 이번 3D방송 흥미도에 대해서는 약 52%가 흥미로웠다고 한 반면,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12.5% 정도로 나타났다.

두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,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에서 3DTV 및 시범방송에 대한 호감도 및 흥미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. 이는 일반인이 전문가보다 3D 영상을 접할 기회가 적어 3D 영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작용하였다고 해석되며, 이와는 반대로 전문가들은 3D 영상 및 기술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.

이번에 실시한 지상파 3D 방송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side-by-side 방식\*의 SD급 3D영상임에도 불구하고 호감 및 흥미도가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, 오는 10월에 실시하는 실험방송은 dual-stream 방식\*\*의 HD급 고화질 3D 방송으로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금번 지상파 3D 방송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D 시청에 따른 불편감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,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통위는 이미 지난 5월 “3D 시청 안전성 협의회”를 구성하여 3D 영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.

한편, 본격적인 고화질 3DTV 실험방송에 앞서 방통위는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가 참여하는 ‘고화질 3D 방송 및 시청 안전성 세미나’(가칭)를 9월 중 개최하여 3DTV 실험방송 추진 경과 및 국내외 3D 업계 최신 동향, 그리고 3D 시청 안전성 연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.

\* side-by-side 방식 : 3DTV를 통해 SD급으로 3D 방송을 시청할 수 있으며, 일반 DTV에서는 화면이 반으로 분할되어 보임

\*\* dual stream 방식 : 3DTV를 통해 HD급으로 2D/3D 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 가능하며, 일반 DTV에서는 HD급 2D 영상을 시청 가능

<붙임>

## 지상파 3D 방송 설문조사 결과

### □ 설문조사 개요

- 설문 기간 : '10. 7. 1 ~ '10. 7. 12(시범방송기간)
- 조사 규모 : 일반인 101명(체험관 방문자 14명, 협회 교육생 77명, 3D 마니아 10명), 전문가 40명(3D 실험방송 TFT 전문가 활용)
- 설문 방법 : 15분 ~ 30분 이내 3D 콘텐츠 시청 후 설문서 작성  
※ 설문 장소(체험관내, 3DTV가 설치된 장소 및 가구)
- 주요 설문 내용 : 시범 방송 만족도, 생리적 불편감, 이용 소감 등

### □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

|                     | 전혀 없다 | 없다     | 보통     | 높다     | 매우 높다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3DTV에 대한 호감도        | 0.99% | 8.91%  | 14.85% | 51.49% | 23.76% |
| 입체감의 정도             | 0%    | 0.99%  | 22.77% | 60.4%  | 15.84% |
| 3DTV 품질             | 0%    | 5.94%  | 22.77% | 62.38% | 8.91%  |
| 3DTV에 대한 흥미도        | 1.98% | 7.92%  | 14.85% | 56.44% | 18.81% |
| 향후 3D 방송서비스 이용의향    | 0.99% | 11.88% | 23.76% | 51.49% | 11.88% |
| 3D 방송 시청시 어지럼증      | 1.98% | 22.77% | 40.59% | 30.69% | 3.96%  |
| 3D 방송 시청시 이중상       | 0.99% | 29.7%  | 46.53% | 19.8%  | 2.97%  |
| 3D 방송 시청시 눈의 피로     | 0.99% | 12.87% | 38.61% | 44.55% | 2.97%  |
| 3D 방송 시청시 안경착용의 불편감 | 0.99% | 10.89% | 33.66% | 41.58% | 12.87% |

□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

|                     | 전혀 없다 | 없다    | 보통    | 높다    | 매우 높다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3DTV에 대한 호감도        | 0%    | 10%   | 50%   | 27.5% | 12.5% |
| 입체감의 정도             | 0%    | 5%    | 67.5% | 22.5% | 5%    |
| 3DTV 품질             | 0%    | 30%   | 40%   | 25%   | 5%    |
| 3DTV에 대한 흥미도        | 2.5%  | 10%   | 35%   | 45%   | 7.5%  |
| 고화질 3DIV 실험방송 기대도   | 0%    | 0%    | 20%   | 75%   | 5%    |
| 3D 방송 시청시 어지럼증      | 0%    | 20%   | 47.5% | 30%   | 2.5%  |
| 3D 방송 시청시 이중상       | 0%    | 27.5% | 37.5% | 32.5% | 2.5%  |
| 3D 방송 시청시 눈의 피로     | 0%    | 2.5%  | 40%   | 40%   | 17.5% |
| 3D 방송 시청시 안경착용의 불편감 | 2.5%  | 5%    | 40%   | 25%   | 27.5% |